

# “3차례 유행 중 가장 크고 장기적” 우려

### 감염재생산지수 1 이상...거의 모든 곳서 집단발생 60대 이상 환자 10% 위중증 발전...특히 주의해야

방역당국이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은 앞선 2차례의 유행보다 심각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급년에 발생했던 3번의 유행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가장 장기적인 유행”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현재의 상황은 국민들이 거리두기에 참여한 덕분에 급격히 증가하던 재생산지수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1 이상으로 환자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며 “집단발생의 패턴도 상점,

체육시설, 의료기관, 요양원, 음식점, 직장, 군부대, 친목모임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거의 모든 곳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60대 이상의 어르신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이후 10%는 위중증으로 발전해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며 “백신을 통해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여러 번의 고비를 염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유행은 이 중 가장



어렵고 강력한 도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사회적 거리를 뒤 접촉의 강도를 낮추고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두 번의 유행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바 있다”

며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되고 있지만 생활화 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몸이 불편하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신봉우기자

## 어깨 부딪쳐 시비 붙은 또래 중요부위 만진 20대 집유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또래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2시 50분께 광주 동구 모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쥐고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B씨의 친구 목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다투다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클럽에서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범행 경위·방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편의점서 강도·문서 위조 사기 20대, 2심도 징역 4년

새벽에 여성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아가면 친척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소송 관련 서류를 위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판사)는 특수강도와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편취금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4시 18분께 광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협박, 현금 35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공장 일을 그만둔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11월 초순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민사소송을 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명시 신청서 1부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피소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으며, 이를 통해 친척에게 7개월 동안 34차례에 걸쳐 6217만 원을 빌려 가로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졌다. A씨의 생활고 주장을 감안해도,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 순천 주택서 아궁이 불씨 추정 화재...인명피해 없어

10일 오전 8시24분께 전남 순천시 외서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36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택이 모두 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길은 인근 야산으로까지 번져 임야 150㎡가 탔다.

소방당국은 아궁이에 지퍼 놓은 불씨가 주변 기름통에 옮겨 붙은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해남서 드럼통 절단 중 폭발...2명 부상

10일 낮 12시 21분께 전남 해남군 현산면 한 마을에서 7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드럼통을 용접기로 절단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손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도 다리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ℓ들이 페드럼통을 개조하기 위해 절단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절단 작업 중 드럼통 내부 유증기에 의해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기아차 광주공장 직원, 격리 해제 나흘 후 확진

### 1·2공장에 이어 3공장서도 발생...일시 가동중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축구 동호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확진자가 자가격리 해제 나흘 뒤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방역 당국이 동선 심층조사에 나섰다.

축구동호회 관련 기아차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게 됐다.

10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 제3공장 의장라인 조립부서 생산직 직원 A씨가 이날 오

전 코로나19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광주 744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A씨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680번과 모 축구동호회에서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어 격리 마지막날 이뤄진 해제 전 의무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호흡기 계통 질환이 있던 A씨는 나흘 뒤인 지난 8일 기저질환 치료 차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돼 정밀 검사를 받아 이날 확진자로 분류됐다. 자택격리 해제 후 나흘 간 비격리 상태로 노출된 셈이다.

이 기간동안 A씨는 지난 7, 8일 이틀 간 증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확진으로 해당 생산라인은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회사 측은 해당 생산

라인에 대한 긴급소독을 실시하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생산라인 가동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앞서 기아차 광주 1·2공장에서도 축구동호회 모임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해 생산라인 가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임직 및 단체협상 결렬 후 생산직 사원들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1·2조(주·야간) 하루 4시간씩 총 8시간 부분과업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기아차 광주 1·2공장에서도 축구동호회 모임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해 생산라인 가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미희기자

## 나주 오리도축장 AI 항원 검출...전남 확산세 지속

### 확진시 반경 3km 이내 가금류 살처분

전남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일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오리도축장 오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도축장에서는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소재 농장 오리 2만2000마리를 도

축했으며, H5형 항원 검출에 따라 모두 폐기 처분했다.

이 농장은 지난 5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영암군 시종면 육용오리 사육농장과 10km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나 지난 5일 음성이 나와 도축을 진행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도축장을 폐쇄 조치하고, 농장에 대한 초동방역도 실시했다.

또 도축장 인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했으며, 도축장 냉장고에 보관 중인 오리고기 4만4547마리도 폐기했다.

항원이 검출된 농장 반경 3km 이내에는 14농가가 40만5000마리(오리 12

농가 17만5000마리·닭 2농가 23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모두 예방적 살처분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5일과 8일 영암군 시종면 육용오리 사육농장과 같은 계열사인 나주시 세지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잇따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순천과 함평지역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돼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오유나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